"지방대학 인재 육성, 지역발전 열쇠"

민주 김윤덕 의원 지방 국립대 총장들과 지역대학 살리기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 국립대학 총장 주관으로 열린 기자 회견장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 국립대학 총장 주관으로 열린 기자 회견장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과 대학 총장들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찾아 지역대학 살리기 간담회를 가졌다.

〈관련기사5면〉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수도권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움직이며 지역인재, 나아가 지역기업까지 흡수하는 블랙홀이 돼가고 있다"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제가 추진 중인 지역인재채용 의무비율 50% 확대 등 지역거점 연구 중심대학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대학교를 비롯해 9개 국가거점국립대학 총장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교육비를 늘리는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50% 확대, 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제 시행, 거점 국립대학에 국가출연 연구소 신설을 통한 연구개발 능력 향상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했다. /유호상 기자

"소상공 위기극복 추경안 증액 통과돼야"

민주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7일 2022년도 1차 추경 국회심의단계에서 보건복지위 15조, 산자중기위 25조 규모로 증액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너무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추경규모, 재원조달, 재정건전성보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이 더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추경 규모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형태 차이로 인해 지원금이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상황이다.

특히, 추경안이 단발적인 위기대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제인 균형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수흥 의원은 "여야와 정부 사이에 추경안을 둔 이견이 합리적으로 좁혀지길 바란다"며 "계속되는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역할,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추경은 반드시 국회심의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오늘 임인년 첫 임시회 개회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첫 임시회(제387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전북도의회는 모두 9회 121일에 걸쳐 회기를 운영하며,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을 꼼꼼히 살펴나갈 계획이다.

먼저,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0일)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2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을 청취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성경찬 의원/고창1) 및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2022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고, 도민을 위해 더 나은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한 뒤 오는 21일(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한다. /유호상 기자

유권자에게 차별화된 선거체험 기회 제공

전북도선관위, 제페토에 메타버스 선거 체험관 오픈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차별화된 선거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비대면 매체를 통한 유권자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제20대 대선 선거체험관'을 10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제20대 대선 선거체험관'은 ▲각종 선거용품 변천사 및 공모전 우수작품을 볼 수 있는 '선거전시관', ▲대통령선거 투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투표체험관', ▲OX퀴즈를 통해 선거정보를 배울 수 있는 '선거퀴즈방'으로 구성돼 있다.

선거체험관은 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페토(ZEPETO)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선거체험관'을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다.

이번에 오픈한 선거체험관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는 지방선거 선거체험관으로 재구성 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는 상설 선거체험관으로 새단장해 계속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유권자들과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선관위는 "코로나19 위험에서 벗어나 비대면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많이 접속해 선거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소방공무원에 장비 개별 지급 근거 명시

이용호 의원, 소방관구조장비 개별지급법 대표발의

화재·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통신·탐색 구조 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는 제도개선이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8일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관구조장비 개별지급법'(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개인 사물함 안쪽에 유서를 보관하고, '잘 다녀올게'라는 말을 뒤로 하고 출근하는 소방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필수장비 개별 지급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안타까운 소방관의 순직과 공상을 예방하고, 더 큰 참사를 방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제방빙 시설 없는 군산공항, 눈 오면 무용지물"

조동용 도의원

도내 유일한 공항인 군산공항에 '제방빙'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방빙'이란 비행기 동체(주로 날개)에 쌓인 눈을 제거하거나 착빙(着氷)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겨울철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 때문에 강설시에 제방빙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항에서는 결항이 불가피하고, 고질적인 결항은 계획된 비행스케줄이 예정대로 실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시성을 저하시켜 이용객 불편 증가와 공항신뢰도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군산공항도 제방빙 시설이 없어 눈만 오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조동용 전북도의원은 "제방빙 시설 미비는 잦은 결항으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군산공항 이용객인 도민들에게 전가된다"면서 "전북도가 군산공항을 관리하는 공항공사 측과 군산-제주노선을 운항하는 두 민항사 측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하루 4편을 운항하는 두 항공사 측이 낮은 비용 효율 문제로 인해 민간 조업사와의 제방빙 작업 계약을 꺼린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가 나서서 공항공사의 패드장 시설 투자를 이끌어내는 한편, 항공사의 지상조업사와의 계약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보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제방빙'은 공항공사가 공항 주기장 내에 제방빙을 위한 별도의 시설(패드장)을 갖추고, 항공사가 지상조업사(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제방빙 작업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호상 기자

유창희 전 부의장, 대학생 청년 정책 의견 수렴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9일 전주 소재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주거 등 폭넓은 청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유 전 부의장은 대학생들이 최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취업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자신이 당선되면 일반 구직 청년의 취업 생계를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청년들이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창업을 꿈꾸는 청년의 창업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과 무주택 청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미래세대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구직과 창업, 주거 문제뿐 아니라 목돈을 적립하고자 하는 청년 등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전주가 청년 종합정책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6·1지방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이 9일 전북도의회에서 고창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꿈과 희망, 생명의 고창으로 비상"

심덕섭 전 국가보훈 차장, 고창군수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이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써 '소멸위기의 고창'을 '꿈과 희망, 생명의 고창'으로 다시 한번 비상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심 전 국가보훈처 차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고창군수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가진 살기 좋은 고창의 냉정한 현실은 사람이 떠나가는 곳이 돼버렸다"며 "고창의 큰 사랑을 받은 심덕섭은 인구감소·지역소멸의 위기와 상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을 넘어 화합하는 사회, 고루 잘사는 사회, 함께 편안한 사회, 문화와 여가를 누리는 사회, '꿈과 희망, 생명의 땅' 고창을 군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을대교가 고창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준비, ▲편안한 농어업, 고루 잘사는 부자 농어촌 달성, ▲청년이 돌아오는 고창, ▲인구 소멸을 막는 주거뉴딜, 명품 주거환경 조성, ▲더 큰 고창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심 전 국가보훈처 차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원으로써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공약한, 전력에너지 4차 산업 클러스터 구축, 서해안(군산~목포)고속화 철도 건설사업 등 고창 관련 굵직한 6개 사업도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써 이재명과 함께 제대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은 "심덕섭의 고향 사랑은 이미 시작됐다"며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기관장 자리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오직 군민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군민이 원하는 일, 필요로 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덧붙여, "중앙정부 출신의 넓은 인맥, 지방행정 능력, 경영·경제 능력,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힘 있는 마당발 심부름꾼이다"며 "다시 한번 비상하는 고창의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합리적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해 달라"

성경찬 도의원, 김영배 민주 최고위원에 건의

성경찬 전북도의회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합리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건의했다.

성경찬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전국의 광역의원 입후보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4:1에서 3:1로 변경돼 농어촌 지역의 광역의원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개특위에서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지역대표성 확보 및 지방자치 발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성경찬 의원은 "김영배 최고위원으로부터 건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선거구 획정안은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며 "하루빨리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되고 의원정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 초등생 등하교 안전보험 일괄 가입 추진"

조지훈 전 경진원장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전주지역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보험 일괄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9일 조 전 원장은 초등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학교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자 ▲등하교 안전보험 일괄 가입 ▲안전사고 시 도움을 위한 법률 지원단 및 자문단 설치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지원 체계 구축 등을 담은 초등학생 안전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놨다.

조 전 경진원장은 전주시에서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했듯 전주지역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주시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교직원의 경우 안전 공제 이외에 연금공단에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학생 관련 정책은 전무하다. 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가정도 적지 않다"며 "전주시가 우선적으로 나서 안전사고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마땅히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없는 만큼 이를 위한 법률 지원단 및 자문단을 설치하고 사후처리 및 보상 지연에 따른 부담을 줄여 신속한 보상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